

## 『麻疹會通』 · 「吾見篇」에 대한 諸問題

<sup>1</sup>서봉덕, <sup>2</sup>안상우, <sup>1</sup>김남일\*

<sup>1</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up>2</sup>한국한의학연구원

### Discussion on 「Oh-Gyun Pyun」, 「Ma Gwa Hwe Tong」

<sup>1</sup>Seo Bong Duk, <sup>2</sup>Ahn Sang Woo, <sup>1</sup>Kim Nam Il

*1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s*

Ma Gwa Hwe Tong, or 麻科會通 is a general medicinal classic on measles which was an attempt to cope with the situation in the later Joseon Dynasty, when measles was prevailing all throughout the country. It was written in 1798 by Jung Yak Yong, who was a famous realist and a distinguished scholar, and in one of the chapters called Oh Gyun Pyun shows his thoughts. What he is trying to do through his writings, Ma Gwa Hwe Tong, was not reforming the current medicinal studies but to organize the classics on measles that he had access to with a system in order. The progressive thoughts shown in his other book, Eui-Ryung or 醫零, should be considered as his own thoughts only, and it is an overstatement to consider the book of Ma Gwa Hwe Tong to be his tryout in such thoughts.

keyword: Jung Yak-Yong, Ma Gwa Hwe Tong, Eui-Ryung, Realism

『麻科會通』은 당대 조선을 휩쓴 紅疹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서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 요구에 부응한 麻疹 綜合書다.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碩儒인 茶山 丁若鏞에 의해서 1798년에 완성되었는데 이 『麻科會通』의 「吾見篇」에 정약용의 견해가 실려 있다. 정약용은 詩文學과 더불어 經學, 經世學과 더불어 音樂學, 科學, 言語學, 史學, 地理學 등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이러한 저술들은 이후 1935년에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與猶堂全書』로 모아져 출간된다. 醫學 方面에서는 그는 『麻科會通』과 『醫零』을 남겨 한국의학사에 큰 발자

취를 남겼는데, 이 밖에도 비록 ‘自纂墓誌銘’에는 명기된 건 아니나 『痘兒神方』, 『單方新編』, 『產方隨錄』 등도 그의 저술로 전해진다.<sup>1)</sup>

한국의학사의 초기 연구자인 미끼 사카에(三木榮)는 茶山の 『麻科會通』을 ‘東洋 麻疹書의 白眉’<sup>2)</sup>라 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麻科會通』을 李獻吉의 의서를 祖로 삼고 여기에 許浚의 『辟疫神方』, 任瑞鳳의 『壬申方』, 趙廷俊의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mailto:southkim@khu.ac.kr)

1) 『村病或治』라는 醫書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與猶堂全書』에 단지 그 서문만이 전해지고 있다.

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東京: 醫齒藥出版株式會社, 昭和47<1972>), p229.

『及幼方』, 李景華의 『廣濟秘笈』을 取捨하고 여기에 중국의 의서인 萬全의 『麻疹心法』, 趙進美의 『麻疹彙編』, 翟良의 治疹大法, 張介賓의 『麻疹詮』 등을 짝지워서 계통적, 과학적 정신을 가지고 편술했다고 평하고 있다.<sup>3)</sup> 그는 丁若鏞을 서구 의학을 받아들인 선구자로 평가하고 그의 의학을 實證醫學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麻科會通』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實證을 중시하고 運氣와 같은 관념적인 의학이론을 배격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洪文和, 金信根 등 이후의 연구자 대부분에게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정약용을 서양의학의 선구적인 도입자로 규정하여 전통적인 견해를 비판한 부분에만 주목했고, 또 서양의학술을 도입한 일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본 種痘法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麻疹에 대해 다룬 『麻科會通』의 본편에 대한 연구보다는 오히려 補遺篇에 수록된 「種痘心法要旨」, 「新增種痘奇法詳悉」의 내용에만 친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丁若鏞의 의학사상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의 견해가 실려 있는 「吾見篇」에 대해서만 시각을 좁힘으로서 다산의 마진의학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일단 「吾見篇」에서 드러난 정약용의 견해를 고찰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 한다.

「吾見篇」은 ‘古醫’, ‘俗醫’, ‘運氣’, ‘年次’, ‘辨明’, ‘豫備’, ‘痘論’, ‘蛔蟲’, ‘寒藥’, ‘雜論’ 등 총 十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미에 ‘李夢叟傳’을 두어 夢叟 李獻吉을 顯昌하고 있다.

「八篇總目題語」에서는 「吾見篇」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諸家の 立論은 각기 精粗한 바와 純雜한 바가 있으나 세상에서 열람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치에 어긋나거나 합치되는 곳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 감히 본인의 의견을 펴서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것으로 吾見篇을 만들었다.<sup>4)</sup>

이 편은 洪奭周가 『麻科會通』을 토대로 1802년의 紅疹大流行에 즈음하여 『麻方統彙』를 간행했을 때 「我俗篇」과 아울러 삭제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당시 정약용이 서학의 힘으로 유배되어 있는 관계로 茶山의 면모가 드러날 수 있는 이 두 편이 숨겨졌을 거라고 추정해 왔다. 그러나 이 두 편の内容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면 다산의 풍모가 드러난다거나 西學의 색채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특별히 기피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古醫 第一’은 『麻科會通』에 수록된 여러 醫家에 대한 개인적인 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가 『麻科會通』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萬全에 대해서는 대단히 혹독한 비평을 하고 있다. 일단 “萬全은 痘疹방면에 이미 집안에서 대를 이어 종사하여 專門을 이루었으니 그 의술이 자못 정밀하다.”<sup>5)</sup>이라 하여 마진학에 있어서 그의 위치가 큰 것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萬全은 마진학에서 거의 祖宗이라 일컬을 만한 醫家이다. 그에 이르러 비로소 麻疹은 痘疹과는 구별되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sup>6)</sup> 물론 그 전에도 王肯堂이 언급한 바와 같이 南宋 聞人規가 말한 膚疹이 麻疹에 해당되기는 하다. 하지만 이 膚疹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고 간략하게 다루어졌다.<sup>7)</sup> 萬全이 있기 전에는 麻疹은

3) 三木榮. 상계서, p229.

단, 여기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治疹大法』은 翟良이 아닌 聶尚恒의 저서이며, 『麻科彙編』은 馬之驥의 저서이고 趙進美는 단지 그의 저서를 翟良의 『痘科釋意』에 합쳐 출판한 간행자에 불과하다.

4) 丁若鏞. 『麻科會通』. 韓國醫學大系, V36. (여강출판사, 1988), p191.

5) “萬全於痘疹, 既世其業, 又是專門, 故治術頗精.” 상계서, p422.

6) 元代의 滑壽의 저서로 알려진 『麻疹通論』은 실제로는 清代에 누군가에 의해 가탁된 저서다.

7) 聞人規. 『聞人氏痘疹論』, 「有正瘡痘有膚疹者何第三十一」. 續修四庫全書, 1011, 子部. 醫家類.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上海古籍出版社, 1995-1999).

痘瘡 또는 斑疹을 논할 때 그 일부로서 가볍게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됨이 천박하고 편협하니...”<sup>8)</sup>, “매번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자신만 자랑하기만 하여 그 오만함이 매우 심하니... 이렇다면 그 著論도 깊이 믿을 만한 건 못된다.”<sup>9)</sup>이라 하여 학문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혹독하게 폄하하고 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의서의 내용이 두루 갖추어져 있으니 ‘中國痘疹之宗’ 이 된다...”<sup>10)</sup>이라 하여 그 공은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馬之騏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평을 하고 있다. 馬之騏는 麻疹의 실제치료과정의 준거를 만든 의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通論에 들어가면 체계가 다소 엉성하다고 보았는데, 사람 됨됨이가 세심하지 못한 데 탓을 돌리고 있다. 또 治方이 寒涼藥에 치우치는 폐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심한 翟良에 의해 그의 『麻科彙篇』이 교정<sup>11)</sup>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호평은 아무래도 정약용이 존경하는 夢叟가 馬之騏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翟良에 대해서도 호평하고 있다. 비록 그는 痘瘡를 전문으로 한 의가이고 麻疹에 대해서는 旁及한 정도지만, 그의 醫論이 정확하고 세심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資異篇」은 대부분 그의 痘瘡論을 인용하고 있다.

聶久吾는 비록 두창학에 치우친 의가이지만 翟良이 深服하고 있음을 의식해서인지 대체로 좋은 평을 하고 있다. 단 그의 ‘三大法’, ‘四大忌’ 등과 같은 도식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變通을 모르는 의론이라 하여 비판하고 있다. 孟介石은 이 聶氏의

『活幼心法』을 교정한 의가로 소개되고 있다. 『活幼心法』은 聶氏의 ‘三大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聶氏의 의론을 계승한 孟氏의 立論이라 보았다. 다산의 『牧民心書』 「寬疾編」에 孟氏의 처방이 소개되고 있다.

黃廉은 萬全의 麻疹學을 답습한 의가인데, 단지 萬全을 全襲하기만 한 독창적이지 못한 醫家로서 폄하되고 있다. 書頭の ‘萬密齋疹毒證治歌括’은 실제로는 黃廉의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萬全에게 쏟아진 ‘賣術之醫’라는 비판도 역시 그에게도 가하고 있다.

孫一奎는 張介賓과 함께 중국 溫補學派의 대가로서 그 이론적인 정교함에 대해서는 明快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에게도 賣術之醫라 혹평하고 있다.

王肯堂은 萬法을 중주하는 醫家이긴 하나 ‘瀉白消毒散’, ‘金沸草散’ 두 처방을 창제한 것에 대해서는 호평하고 있다.

繆仲淳의 『沙疹論』은 繆씨가 本草에 밝고 立方을 하는데 明快하여 취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朱之黯의 『疹科治法綱』은 고금의 疹論을 집록한 공은 인정하나 두창과 마진을 구별하지 않았던 宋元醫家의 의론과 처방까지 구별없이 섞어 놓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張介賓의 『景岳全書』에 대해서는 ‘近世醫書之淘洗’라 하여 뛰어난 創見이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그가 托補에 너무 치우친 면에 대해서는 ‘矯枉之過’라 하여 비판하고 있다.

錢仲陽, 陳文中, 王海藏, 張潔古, 朱丹溪, 李東垣에 대해서는 각기 뛰어난 醫家임은 인정하나 당시 正疹이 아직 크게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창과 마진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薛己의 『保嬰撮要』, 徐東臯, 程晨峯에 대해서는 모두 痘疹에 관한 한 專門이라 할 수 있으나 麻疹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바가 없다고 보았다.

李梴은 ‘近醫醫門正學’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가 논하는 麻疹은 正疹과는 다르기

“臟腑不同, 表裏有異, 膚疹瘡痘, 分別淺深. 六腑屬陽, 有熱則易出. 是以作疹. 一出則遍滿肌皮之上. 如癩瘡細孢子見而便沒. 其所受氣淺故也. 五臟屬陰, 有熱則難出, 其爲瘡痘, 在肌肉血脈之間, 必先發紅斑以後, 如豆故, 名瘡痘, 其所受氣深故也.”

8) “其爲人, 浮誇詭險.” 정약용. 상계서, p422.  
9) “每抑人而揚己術能而逞氣甚... 如此, 其著論不可深信.” 상계서, p422.  
10) “然其書大備, 爲中國痘疹之宗...” 상계서, p422.  
11) 상계서, p192.

때문에 정약용은 그것을「辨似篇」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龔廷賢에 대해서는 痘疹에 대해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고 그 처방도 소략하여 별로 취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에게는 ‘博而不精’하다는 평을 하고 보았다.

翁仲仁의 『金鏡錄』은 오로지 痘疹에 대해서만 다룬 저서이기에 麻疹에 대해서는 너무 소략하여 취할 만한 게 없다고 보고 있으며 吳學損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을 하고 있다.

景日曠의 『崇崖秘書』는 순전히 運氣를 논하고 있으며 麻疹에 대해서는 단지 張景岳의 緒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許浚의 『辟疫神方』은 당시에 처음으로 집한 毒疾에 대해 臆見으로 논한 바가 많아 지금으로서는 취할 바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처방의 경우 모두 ‘傷寒疫癘之家’에서 나온 것인지라 아예 빼버리고 俗方에나 수록했다고 했다. 다만 거기서 立論한 바는 뜻이 깊어 존중할 만하다고 보았다.

李夢叟는 거의 馬法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萬法을 參考한 것이서 萬馬와 큰 차이는 없으나, 蛔證에 대해서는 크게 發揮해 낸 점을 들어 ‘東國疹家之宗’이라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吾見編 말미에 따로 ‘李夢叟傳’을 두어 그의 행적을 顯昌하고 있다.

趙廷俊의 「及幼方」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대필을 시켜 만든 저술이다’<sup>12)</sup>라 하여 극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인신공격을 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거기에 수록된 마진학에 대해서도 ‘단지 萬, 王 등 몇 의가의 견해를 섞어 놓은 것일 뿐인 것이라 취할 만한 것이 못된다.’<sup>13)</sup>라 하여 악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악평과는 달리 정작 「我俗篇」에서 『及幼方』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의외로 정약용 개인의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

‘俗醫 第二’는 당시의 業醫들의 문제에 대해 논

하고 있다.

‘運氣 第三’에서는 運氣論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일단 運氣論에 대해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

모두들 ‘夢叟는 疹書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運氣를 모르면 끝내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흠! 나는 운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몽수가 운기라는 두 글자를 앞세워 말하고도 그 내용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니, 비록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眞諦인지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乙의 해는 從革肺金이 不足하다거나, 未 해의 三氣, 四氣 등의 說’이 거기에 쓰여져 있기는 하나 이는 許浚의 『東醫實鑑』중에 다 나오는 내용이다. 그 논하는 바가 본래 深奧하여 不可測하다 할 건 없다.

또 그 乙未 해에 사용한 처방은 모두 萬馬 두 의가의 처방이다. 萬馬 二家에 대해 모르면서 단지 乙未의 運氣만을 가지고 처방을 미리 만든 것이란 말인가? 운기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면 왜 근거(柄鑿)로 삼지 않는가? 여기서 몽수가 運氣之說에 대해서 본래는 깊이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 말로 외람되이 운기에 대해 밝지 않음을 변명하려 들겠다.<sup>14)</sup>

그러면서 또 왜 運氣를 모르면 一切의 輪行之疾을 논할 수 없다는 星湖의 말은 첫머리에 기록하는가?<sup>15)</sup>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약용은 運氣論에 대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運氣로 麻疹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마땅치 않아 하면서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 “一文宰, 欲著趙名, 而代述者”. 상계서, p426.

13) “僅見萬王數家, 而亦不純用, 無可取者”. 상계서, p426.

14) 상계서, pp430.

15) 상계서, pp429.

‘年次 第四’에서는 麻疹의 질병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丁若鏞이 사숙했던 星湖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여기에 더하여 大善은 『國朝寶鑑』과 『文獻備考』, 『芝蓬類說』 등의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좀 더 발전된 麻疹의 유행사를 기술하고 있다.

星湖 李瀼의 麻疹학은 大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저서 『星湖僿說』, 「麻疹」에서 麻疹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의가에 비해 인용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거의 전 내용이 『麻科會通』, 「原證篇」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李瀼은 麻疹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없던 병이며 顯宗朝 戊申年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성호는 이후 麻疹이 거의 12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세성의 주기와 연결짓고 있는데 간혹 주기에 오차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행성의 운행이 간혹 늦거나 빠른 것에 돌리고 있다. 大善이 본 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麻疹의 유행사는 이 성호의 학설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丁若鏞은 이와는 달리 허준이 辟疫神方을 저술했던 光海 五年부터 기산하고 있다. 심지어는 左傳의 기록까지 살펴 疔證의 기원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의해 정리된 麻疹의 유행사를 살펴보자.

大明 萬曆 四十一年 癸丑 光海 五年 疹 始行 至甲寅(1613년)

康熙 七年 戊申 顯宗 九年 疹 大行(1668년)

康熙 十九年 庚申 肅宗 六年 疹行((1680년)

康熙 三十一年 壬申 肅宗 十八年 疹行(1692년)

康熙 四十五年 丙戌 肅宗 三十二年 疹大行(1706년)

康熙 五十七年 戊戌 肅宗 四十四年 疹行

至巳亥(1718년)

康熙 六十年 辛丑 景宗 元年 世第紅疹平復(1721년, 正疹이 아니라고 봄)

雍正 七年 己酉 英宗 五年 疹大行(1729년)

乾隆 八年 癸亥 英宗 十九年 世子紅疹平復(1743년, 正疹이 아니라고 봄)

乾隆 十七年 壬申 英宗 二十八年 疹大行(1752년)

乾隆 四十年 乙未 英宗 五十一年 疹大行(1775년)

乾隆 五十一年 丙午 正宗 十年 疹行(1786년, 未詳其爲正疹)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유행을 전부 正疹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麻疹은 대략 12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辛丑, 癸亥, 丙午년의 疹疫은 그 주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星湖가 麻疹의 유행이 木性인 歲星의 운행에 상응한다 하여 麻疹의 병리를 木藏인 肝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견해<sup>16)</sup>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辨名 第五’에서는 「原證篇」 ‘名謂 第一’과 관련된 정약용의 의견이다.

우선 萬, 馬 등 다른 의가들이 正疹을 麻疹이란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유독 張介賓만이 麻疹이란 용어를 반진에 쓰고 있어 혼란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麻疹詮』에서 張介賓은 분명 萬全의 麻疹書를 계승<sup>17)</sup>한다고 밝혔으면서 실

16) 歲星木也. 人之五臟, 肝屬木. 此必胎生熱毒, 藏在肝臟, 值運觸發而如火之燃木也. 其證多患脾虛, 木性則克土. 如小兒驚風, 肝氣入土也. 其治方慎風寒, 使皮膚疎開, 斑點快透, 使過半矣. 皮膚屬肺, 肺者金也. 肺金用事, 肝木內鬱, 爲痰咳喘急, 此最大患. 『星湖僿說類選 · 麻疹』

17) “...自得羅田萬氏之刻, 見其理透法精, 鄙念斯慰, 今悉從其訓, 備述於此. 雖其中稍有裁訂, 亦不過正其疑似, 詳其未詳耳...” 張介賓. 『景岳全書』下. (大星文化社, 1987), P113.

제로는 말미에 따로 ‘附麻疹’이란 장을 두어 다루고 있다. 이것은 그가 ‘疹, 痘, 麻, 斑’의 네 병증을 각기 분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李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李梴의 『醫學入門』의 麻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正疹이다. 그런데 張介賓이 논하고 있는 麻疹은 사실상 斑疹이다.<sup>18)</sup> 정약용이 한탄하듯이 당시 조선에서 麻疹을 斑疹과 混用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러한 영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sup>19)</sup> 그래서 중국 의서에서 疹이라 논하고 있는 부분은 조선에서는 ‘發斑’, ‘消斑’ 등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斑疹이란 傷寒에서 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혼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李獻吉의 麻疹書에 나오는 ‘斑’이란 표현을 전부 ‘疹’으로 바꾸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斑疹’, ‘唐毒症’, ‘陡突惡’, ‘癩疹’ 등 斑駁疹毒의 종류가 많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혼동되는 점이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豫備 第六’에서는 麻疹이 매우 급속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필요한 약을 준비해 둘 것을 말하고 있다.

‘症論 第七’에서는 麻疹이 痘瘡과는 달리 餘毒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蛔蟲 第八’에서는 우리나라에선 麻疹에 蛔蟲證이 빈발한데 中國醫書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희소함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 李夢叟의 기여가 매우 큼을 말하고 있다.

丁若鏞은 夢叟의 麻疹學에서 蟲證에 대한 고찰이 상세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東國疹家之宗’이라고까지 말하며 크게 평가하고 있다. 『麻科會通』에서는 熱病 후에 발생하는 괴사성 질환인 ‘狐惑症’도 蟲證의 일환으로 같이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蟲證이 麻疹의 진료과정에서 왜 중요할

까?

우선 마진과 병발된 蟲證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蛔蟲이 動하게 되면 마진의 出疹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는 그 疹毒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위급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 蟲證 자체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마진과 병발된 蟲證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다가 麻疹치료를 그르치기도 한다. 治蛔藥인 오매, 오미자 등이 酸澁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약이 마진의 出疹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차라리 황금, 황련과 같은 淸熱藥이 주효한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기존 의서에서는 麻疹과 병발된 蟲證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몽수가 마진학의 基幹으로 삼았던 馬之騏 역시 여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마진 蟲證에 대한 夢叟의 기여는 절대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는 萬全이 痘瘡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治蛔法을 마진과 동반된 蟲證치료에 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丁若鏞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蟲證 자체에 대한 다른 의가들의 醫論과 醫方을 滙集해서 더욱發揮해 보려 하였다. 『資異篇』, ‘蛔蟲第十六’의 뒤에 부기된 ‘附鈔錄大科諸書蛔蟲證治’에는 張介賓, 孫一奎, 聶久吾, 錢謙, 徐氏와 같은 의가는 물론, 그가 마진에 관한 한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던 薛己, 丹溪과 더불어 『外臺秘要』, 『千金要方』, 『巢氏諸病原候論』과 傷寒의 蟲證에 대해 언급했던 張仲景과 그의 상한론에 주해를 했던 成無己의 의론까지 모두 滙集해 보았다.

蛔證은 유독 조선 그것도 17세기에 이르러 급격히 나타났다. 임신년의 유행때부터 을미, 병오년의 대유행기에 심하게 나타나 疹疫을 앓는 자가 蛔證으로 많이 죽었던 것이다. 회충이 목구멍으로 기어 나오거나 복통을 유발하기도 했고, 대변으로도 회충이 나왔다. 회약을 쓰면 증상이 호전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너무도 명백하여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疹書를

18) 丁若鏞은 張介賓의 麻疹과 許俊의 唐毒症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19) 李獻吉의 『乙未新詮』은 물론이거니와 李景華의 『廣濟秘及』을 비롯한 많은 조선의 마진서에 마진에 해당되는 병증을 斑疹이라 칭하고 있다. 黃度淵의 『醫宗損益』에 이르러서 麻疹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아무리 훑어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조문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산은 여기에 대해 ‘古今異運’, ‘華東殊氣’<sup>20)</sup>라는 고식적인 설명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의 상품경제가 발달하면서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麻疹의 유행에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집단이 필요한데 이는 충분한 인구를 보유한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蛔蟲症의 만연에는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는 농경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양의 인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도시가 농촌 인근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 양자의 요인이 결합되어서 朝鮮의 麻疹 蛔症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인이 없진 않을 것이나 조선의 경우 이러한 도시화가 18세기에 이르러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 변화상이 두드러진 것은 아닐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李獻吉은 萬全의 『痘疹心法』의 ‘痘後餘毒’에 나오는 두 黃芩湯을 疹疫의 蟲證에 응용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sup>21)</sup>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듯 하다. 『廣濟秘笈』(1790년)에서 李景華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吐蛔, 不可用理中之劑. 以山查三錢、史君子二錢、檳榔一錢、甘草炙五分. 水煎服. 常用山查茶.

傷寒論云: 傷寒大熱吐蛔、用理中湯, 不可用寒涼之劑. 以此觀之, 當用理中之劑. 且動蛔, 古人專歸於胃寒, 則能無胃熱而吐蛔乎? 前輩無一人言者, 不敢強解.<sup>22)</sup>

傷寒論에서는 吐蛔證에는 단지 胃寒을 치료하는 理中湯이 있을 뿐, 寒涼한 약제를 쓰는 것은 금

기된 사항이다. 그런데, 李獻吉과 같이 寒涼한 약제를 써서 吐蛔證을 치료하는 사례를 부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sup>23)</sup>

‘寒藥 第九’에서는 李夢叟가 寒藥을 多用한 것에 대한 당시 비판에 대해 변호하면서 한편으로는 寒藥을 과용했을 때 나타나는 敗證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하고 있다.

‘雜論 第十’에서는 마진과 관련된 단편적인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이 편에서 나타난 의견만을 근거로 다산의 의학사상을 특징지워 왔다. 그러나 정작 『麻科會通』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原證篇」, 「因證篇」, 「辨似篇」, 「資異篇」, 「我俗篇」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면 「吾見篇」에서 드러낸 견해만을 고집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특히 ‘古醫 第一’에서 피력한 바에 따라 각 의가의 비중을 다룬 것은 전혀 아니다.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萬全의 의론이 사실상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대필시킨 의서라고까지 혹독하게 비난했던 趙廷俊의 「及幼方」의 내용이 「我俗篇」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마진의 개념을 다른 의가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게 한 張介賓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평가를 내린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게다가 運氣에 대한 비판은 별로 철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運氣의 중요성을 논하는 夢叟에게서 애써 그 색채를 희석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疹疾이 運氣에 달려 있다는 星湖 李瀼의 견해를 인정한 이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辨名 第五’에서 피력한 바대로 그는 斑疹과 麻疹을 철저하게 구별할 것을 주장한 것은 『麻科會通』에서 그대로 관철했다. 夢叟의 麻疹書에 나오는 ‘斑’이란 표현을 전부 ‘疹’으로 바꾸었다. 또 ‘蛔蟲 第八’에서 보여준 것처럼 蟲證에 대해 강

20) 상계서, pp438.

21) 黃芩湯의 원래 용도는 協熱利를 다스리는 것이다.

22) 이경화. 『광재비급』. (평양의학출판사, 1992), p107(원문)

23) 물론 이현길도 때로는 胃虛로 오는 吐蛔證이 있을 수 때문에 理中湯類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정약용. 상계서, pp340~341.

조한 바는 본문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因證篇」과 「資異篇」에서 따로 장을 나눠 논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따로 ‘附鈔錄大科諸書蛔蟲證治’를 두어 蟲證에 대한 各家의 견해를 滙集했다.

정약용에게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고 새로운 견해를 관철하길 기대한다면 불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날드 베이커의 말대로 그는 여전히 전통의 기반 위에서 있는 의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麻科會通』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 의학을 혁신하고자 했다가보다는 다만 제대로 정리된 계통을 가지고 그가 접할 수 있는 모든 麻疹書を 會通하는 것이었다. 『醫零』에서 보여준 여러 혁신적인 견해는 그저 개인적인 소견에 그쳤을 뿐 마진학에서 새로운 경지를 시도하진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原典類》

- 丁若鏞. 『麻科會通』.(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7671-28-1~10)  
 . 『麻科會通』.(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68-96)  
 . 『麻科會通』. 韓國醫學大系, V36. 여강출판사, 1988.  
 . 『醫零』. 韓國醫學大系, V42. 여강출판사, 1988.  
 . 『與猶堂全書』. 景仁文化社, 1970.  
 . 『與猶堂全書補遺』. 景仁文化社, 1974.  
 張介賓.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1987.  
 王肯堂. 『證治準繩』. 欽定四庫全書 子部 五 醫家流 V38. 大星文化社, 1995.  
 孫一奎. 『赤水玄珠』. 欽定四庫全書 子部 五 醫家流 V34. 大星文化社, 1995.  
 吳謙, 劉裕鐸 등. 『御纂醫宗金鑑』. 欽定四庫全書 子部 五 醫家流 V49. 大星文化社, 1995.  
 翟良, 馬之騏 등. 『痘科釋意』.(필사본, 규장각 소장 奎中 2113. v.1-4)  
 聞人規. 『聞人氏痘疹論』. 續修四庫全書. 1011, 子部. 醫家類. 上海古籍出版社, 1995-1999.  
 李景華. 『廣濟秘笈』. 여강출판사, 1992.  
 黃度淵. 『醫宗損益』. 여강출판사, 1993.

李瀾. 『星湖僿說類選』. 文光書林, 1929.

『日省錄』 十一. 保景文化社, 1988.

### 《단행본》

- 도날드 베이커. 『朝鮮後期 儒敎와 天主教의 대립』. 김세윤(역). 일조각, 2000.  
 리용태. 『다산 정약용』. 도서출판 푸른솔, 1998.  
 최익한. 『실학과와 정다산』. 한국문화사(영인), 1996.  
 洪文和. 『藥史散放』. 東明社, 1980.  
 홍이섭. 『朝鮮科學史』. 正音社, 1946.  
 孔健民. 『中國醫學史綱』. 인민위생출판사, 1988.  
 梁運通 主編. 『黃帝內經類析』.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昭和 48년 (1973년).  
 .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 醫齒藥出版株式會社, 昭和47(1972).  
 金장태. 『정약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2.  
 . 『조선 후기 儒敎와 西學: 교류와 갈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66.  
 金信根. 『韓國藥書攷』.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韓國醫藥事』.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이성무. 『조선왕조사2』. 동방미디어, 1999(초판 1998).  
 李元淳. 『朝鮮西學史研究』. 一志社, 1996.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논문 및 정기간행물류》  
 朴星來. “丁若鏞의 科學思想”. 茶山學報, '78년 6월, 1, 151~176쪽.  
 김대원. “정약용의 의학론”. 계간 과학사상, 2000, 여름, pp135~152.  
 金澁, “朝鮮後期 ‘痘疹’ 研究 : 『麻科會通』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7('96.6), pp.133-183  
 韓祐昞 외 13인. 『丁茶山 研究의 現況』. 民音社, 1985.  
 崔鎭羽. “夢叟 李獻吉의 麻疹方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徐奉德. “醫零으로 본 丁若鏞의 醫學思想”.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